

# 주일낮 예배 순서

<b>오전 10시 30분</b>		<b>인도:오명현목사</b>
전 주(프롤로그)		반주자
시편낭독	시18:1-3	
영광송	621장	
공동기도	주기도문	
성삼위송	2장	
성시교독	교독문96번	
경배송	565장	
기도		서재호집사
찬양	563장(예수 사랑하심을)	
성경봉독	<b>【엡6:1-4】</b>	
봉헌	(현금위원 정재용)	다같이
봉헌기도		오명현목사
말씀강론	<b>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b>	
기도		인도자
송영	1장	다같이
축도		오명현목사
후주		반주자
교회소식		인도자
※ 다음주 기도: 김용회 집사 ※ ※ 현상 위원:정재용 집사 ※ 안내위원:이정환집사, 함점순집사		

<b>주일오후 예배</b>		
<b>시간 오후 2시</b>	<b>인도:오명현목사</b>	
신앙고백	사도 신경	다 같이
찬송	322,450장	다 같이
기도		국은영자매
성경봉독	삼상15:1-9	사회자
강론	<b>역사에 대한 무지의 결과</b>	오명현목사
축도		오명현목사
교회소식		사회자
※ 다음주 기도: ※		
<b>수요일예배</b>		
<b>시간 저녁 8시</b>	<b>인도:오명현목사</b>	
신앙고백	사도 신경	다 같이
찬송	453,182장	다 같이
기도		국은영자매
성경봉독	행1:6-11	사회자
강론	<b>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b>	오명현목사
축도		오명현목사
교회소식		사회자
※ 다음주 기도:황혜순 집사 ※		

## 함께하는 교회를 섬기는 분들

### 전도부

- 남전도회
  - 회 장: 서재호 집사
  - 부회장: 김용회 집사
  - 회계 서기: 이정환 집사
- 여전도회
  - 회 장: 함점순 집사
  - 부회장: 황혜순 집사
  - 서기 회계: 김부자 집사

### 교육부

- 유초등부
  - 부장집사: 이정환 집사
  - 교 사: 김은혜, 오성원
- 중고청대부
  - 부장집사: 정재용 집사
  - 교 사: 김민수, 예련, 국은영, 이요셉(중등)

### 예배부

- 예배반주: 김부자, 국은영, 오성원
- 찬 양: 이요셉(팀장) 국은영, 오은영, 예련
- 찬송지휘: 서재호

- 함께하는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 후 목회실에서 환영 및 면담시간이 있습니다.
- 주보에 기재된 주간 나눔의 말씀을 읽고 가정 및 소그룹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를 올려드리는 기록한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언약의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 5월 6일(목) 밤 8시에 본당에서 성경대학 초급반 개강합니다.
- 이주희 형제가 5월 4일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유학동안 도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 2010년 5월 2일

### 함께하는교회표지

- \*오직 하나님께 영광
- \*순전한 말씀 선포
- \*개혁주의 신앙 실천
- \*거룩한 사명과 헌신

### 바이블 아카데미

- 성경대학 운영
- 기독교 사상 세미나
- 회복 사역 센터 (이단상담 & 치유)

### 주일에배시간

주일낮예배	10:30
유초등부	11:45
중고등부	12:45
대학청년부	12:45
오후예배	14:00

### 대한예수교 장로회 함께하는교회

담임목사 : 오명현  
 주소 :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2가 40-31 (063-905-3355)  
 이메일 : dasisajak@hanmail.net

# 그리움

오명현목사

춘래불이춘(春來不以春), 4월 29일 봄이 왔으나 우리 국민에게는 아직 봄이 아니었다. 46명의 천안함 해군 장병들의 영결식은 눈물 그 자체였다. 자동차 안에서 중계방송을 듣던 나도 함께 눈물을 흘렸다. 갑판 부사관 김현래 중사의 추도사 중 “미안합니다. 그리고 또 미안합니다. 그대들을 천안함 속에 남겨둬서 미안합니다. 그대들과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죄송합니다.”의 낭독에 꼭 내가 잘못된 것 같았다.

살아 있는 자들에게 봄을 허락할 수 없다는 듯, 그 날 강원도에는 눈보라가 일었다. 설악산 대청봉에 4cm의 눈이 쌓인 강원 산간은 또다시 겨울로 되돌아갔다. 날씨가 점점 철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철 없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교회당 앞 화단에 핀 동백꽃도 철쭉도 그리움을 감춘 슬픔을 머금고 활짝 웃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만남에서 희망의 꽃이 피어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노라면 내 눈에는 그리움의 그림자가 아른거린다.

홀쩍 떠나온 그 자리, 희망과 사랑과 친절 그리고 아쉬움과 후회가 새겨진 그 자리를 그리움으로 매만져 본다. 가족이었고, 한 곳을 바라보았던 길동무들이었는데, 이미 과거가 된 그곳으로 고개를 돌려본다. 눈물과 땀을 흘리면서 무너진 보금자리를 다시 고쳐 다듬었던 마음들이 진한 냄새가 되어 아직도 풍겨온다.

그리움,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어도 그림자던데, 그리움을 더 부풀리는 5월이 시작되었다. 어린이 날, 아버지 날, 스승의 날, 청년의 날 등은 입었던 은혜를 되새기게 한다. 가정의 달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가치를 확인하는 달인 것 같다. 지난

날 입었던 은혜를 감사함으로 표현 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이다.

성인이 되어서 몇 번 찾아뵈었던 중학교 은사님, 멀리 있어 전화를 드리면 ‘잊지 않고 전화 주어서 고맙네, 자네 얼굴 본 지 몇 년 되었지?’ 라고 하시던 그 은사님이 소천하셨다. 기회를 놓친 후의 그리움은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안개처럼 희미해졌다. 현실적인 만남이 없으면 그리움은 한낱 그림자에 불과한 것 같다.

독제시대의 저항 시인이었던 박노해의 [그리움] “공장 트랙에/다사로운 봄별 내리면/휴일이라 생기 도는 아이들 얼굴 위로/개나리 꽃눈이 춤추며 난다/하늘하늘 그리움으로/노오란 작은 손/꽃바람 자락에 날려보내도/더 그리워 그리워서/온몸 흔들다/한방울 눈물로 떨어진다” 를 보면 소외된 자들에 대한 아픈 그리움이 만져진다.

그리움, 슬픔 짙은 과거로 끝나는 것도 있고, 과거에는 아픔이었지만 멀지 않은 날에 다시 꺼내 매만질 때는 웃음 짓는 것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그리움에는 약속의 그네를 함께 탄 소망이 담겨 있다. 영원을 향한 생명이 있기에 얼굴과 얼굴을 대화하면서 그리움을 찬송으로 승화시킬 소망이 있다. ■

##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 시작하는 말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끊임없이 주변의 인적 물적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내적인 과정만을 보아서는 안됩니다. 성경은 인간을 죄인으로 단정합니다(롬3:10).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가 모든 악의 씨앗이지만 죄가 어떤 환경을 타고서 자라며 꿈틀거림이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특히 가족은 개인의 생물학적 구성뿐만 아니라 초기 경험에 영향을 주고 사회화의 주요한 대리자라는 점에서 개인의 인격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가족은 그 가족이 이루는 문화의 틀이 있고 가족은 상호 그 문화의 틀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부모의 삶의 방식은 자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오늘은 부모의 자녀 교육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부모는 하나님의 간접 대리자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또 아버지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고 하였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아버지에게만 하는 권면인 것 같지만 어머니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질서상 아버지의 권위를 말한 것뿐입니다. 가정에서 가지는 아버지의 권위는 우주 내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권위와 동일하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위치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형상’ 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대리자입니다. 어떤 문화권에서는 모성(母性)이 더 앞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묘사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대부분 남성적입니다. 특히 이방의 세속적인 영향을 받은 고린도교회는 가정의 질서를 깬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고 하였습니다(고전11:7). 더욱이 예수님께서 남성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남성적인 성품을 가지셨다는 견해를 강하게 뒷받침합니다.

##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본문 4절을 보면, “아버지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고 하였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을 보면, “아버지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에베소 사회는 가장(家長)의 권한으로 자녀를 죽이기도 했습니다. 로마인들의 타락한 관습은 자녀의 인

격을 매우 경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모는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2세가 되면 기쁨과 즐거움의 감정이 있고, 분노-공포-격정-질투-좌절과 같은 감정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3세가 되면 부모들의 감정을 이해합니다. ‘우리 아빠 화났다. 우리 엄마 울고 있다’ 라고 정서적 언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들 앞에서 함부로 말하면 결국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죽이는 경우가 됩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의 표현은 자기 자녀들의 영혼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편애하지 말아야 함

부모가 자녀들을 대할 때 편애하는 것은 아주 나쁜 결과를 가져옵니다. 어렸을 때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딸들을 편애했던 과거 부모들의 교육방법은 형제들로 하여금 시기를 낳고 미움을 낳고 자칫 형제간의 유혈 사태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성경 창세기를 보면, 요셉을 야곱이 편애를 했습니다. 그 결과 요셉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창37:4). 그리고 그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다가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창28). 야곱의 자녀들 간의 이런 비극은 편애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구원의 큰 경륜이 작용한 것은 틀림없습니다(창37:7-8). 그러나 그 과정은 형제들간의 반목과 아픔을 낳았습니다.

## 폭언과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불러온

본문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여기 “노엽다” 는 말은 헬라어로 “파로르기조(παροργίζω)” 는 ‘격노케하다’ 는 뜻입니다. “노엽다” 는 말은 ‘섭섭하고 분하다’ 는 뜻이고, “격노하다” 는 말은 ‘격렬하게 성을 내는 것’ 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인은 동생 아벨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때에 가인의 안색이 변하고 아벨을 시기하더니 결국 아벨을 죽였습니다. 역사상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창4:8).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가인의 자손들이 폭력자가 되고 살인가를 부를 정도로 극도로 타락한 성품을 드러냈던 것입니다(창4:23). 부모가 자녀에게 큰 소리를 칠 때 자녀들은 숨죽이고 대항하지 못하고 있지만, 잘못된 아빠가 해놓고 엄마한데, 자신들에게 화를 부리면 그 화가 자녀들의 가슴에 분노를 키우는 것입니다. 쉽게 분노를 표현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잠언 기자는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

## Holy Community

1. 본문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세요.

2. 자녀와 부모의 위치에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서로 이야기 해보세요.

3. 오늘 본문에서는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편애하지 말아야 함”, “폭력과 폭언”, “과잉보호” 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조심해야 하는지 이야기 해보세요.

4. 그렇다면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왜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는지 이야기 해보세요.

## 말씀노트

## 우리 교회는...

1.우리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합동) 동전주 노회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칼빈주의 개혁신학을 기반으로 세워진 교회로서 교회 이름은 “함께하는교회(Together Community church)” 인데, 그리스도의 몸예 연합된 사실을 뚜렷하게 드러내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우리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에 두고, 그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선포하며, 개혁주의 신학과 그 유산들인 ‘소요리문답’, ‘하이델베르크신조’, ‘롤트신경’, ‘백지신앙고백서’ 등을 배우며, 그 교리를 실천하는 현실적 중표를 거룩한 사경과 헌신을 우리교회의 표지(얼굴)로 삼았습니다.

3.우리교회는 마이블아카데미 안에 성경대학을 개설하여 초급반(기독교교리공부 10주과정)과 중급반(성경의숲을보는교육 8개월과정)과 고급반(역사, 사상, 문화관, 세계관 공부, 약 2년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우리교회는 이단이 난무한 시대에 이단에 빠져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담을 통해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를 안내해 주고 치유해 주는 사역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 제3장 역사에 대한 무지(無知)의 결과

오명현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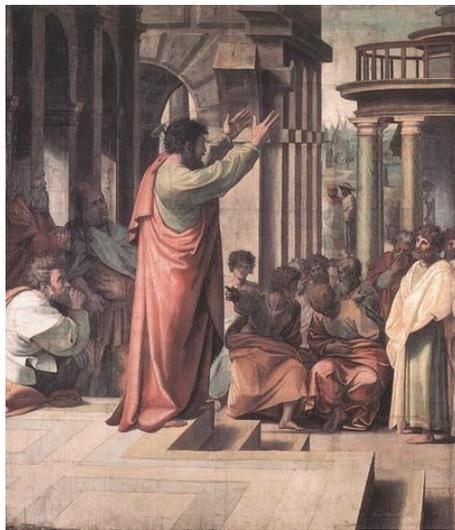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의 그 중심이 복음일 것이라고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역사에 대한 관심이 희박한 것 같다. 역사에 대한 관심의 부재는 다음 두 가지의 원인에서 비롯된다고 생각된다.

먼저 오늘날의 교인들은 개인주의적인 구원관의 경향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 같다. 물론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의 영혼의 변화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구원은 개인이 죄와 형벌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구원이 개인적으로 이루어질지라도 구원은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행위이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인간 개인의 울타리에 갇혀있지 않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공동체를 목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은 각 개인의 구원을 누리는데 멈추지 않는다. 물론 역사의 초기에는 가정이라는 단위로 구원의 모습이 보였지만 그것도 개인 구원에 멈추지 않았다. 가정, 족장, 구약 이스라엘 민족, 신약 교회 등은 구원이 개인적인 수준이 아니라 공동체적이라는 사실이다. 이렇게 구원은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발전되기 때문에 역사를 무관심할 수 없는 것이다. 개인의 구원은 더 큰 역사의 목적을 성취하는 출발점임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이 시대의 교회가 개인주의 적인 구원관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큰 틀 속에서 복음이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무관심이 개인주의로 흐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구원을 세상 적인 조건, 즉 물질주의적이고 현실주의 적인 것들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보는 현상이 작금의 교회에 자리잡고 있는 것 같다. 구원은 하나님이 역사를 창조하실 때 가지셨던 목적을 성취시키는데 의의가 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세계를 소망하는 것이다. 그런데 구원을 기복주의 적이고 이 땅의 수준으로 천박하게 변질시키면 영원한 세계에 대한 관심이 없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은 곧 역사에 대한 관심이

다. 역사에 대한 무지는 사고(思考)의 틀이 썩고 낡고 사라지는 것으로 형성된다. 역사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은 구원을 말하면서도 근시안적인 인간관을 낳게 된다. 겨우 죄의 토양에 삶의 터전을 일구고 거기에 집착하게 된다.

우리 시대를 좀 더 깨우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려면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의 줄기를 바로 통찰해야 한다. 역사를 객관적으로 보는 눈을 떠야 역사 속에 진행되는 구원의 일들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이단들은 성경을 역사적인 관점의 해석을 거부한다. 이단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교주가 최종 목적이다. 교주에게 집중시키기 위해서 모든 성경을 억지로 쏜다. 그리고 영혼을 도둑질한다. 누가 복음에 나오는 두 인물들, 안나와 시므온은 영적으로 어둡고 정치적으로 로마의 억압과 고통 속에서도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쁨으로 맞이했다. 그들은 세상의 역사를 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놓치지 않고 살폈다. 하나님이 진행시키는 구원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그 만큼 자기 시대에 펼쳐지는 구원의 일들을 결코 소홀하게 넘기지 않는다. ■



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고 하였습니다(잠12:16). 또한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잠15:1).

### 과잉보호, 마마보이로 키우지 말라

부모들이 아이들 위협에 처할까봐서 나이에 상관없이 지나치게 보호하는 것은 자녀의 인성을 항상 어린아이로 만듭니다. 나이에 따라서 약간의 모험은 육체적 도덕적 영적 발육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잉 보호를 받은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나중에는 공격적이 된다고 합니다. 자녀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녀 속에 있는 가치 판단의 자유를 적당하게 허락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수를 어렸을 때부터 인정할 줄 아는 사람으로 키워야 합니다. 과잉보호는 자신감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왕따 당하기 쉽고 자신을 보호해 주지 않는 친구를 공격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고 합니다. 과잉 보호는 가혹한 무중과 가차 없는 체벌을 불러오고 그 결과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쉽게 보복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인격이 무시된 무자비한 매질은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특히 부모의 가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해야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1절에 “아버들이 너희 자녀를 격노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고 하였습니다. 헨드릭슨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과잉보호, 편애, 실망시키는 것, 자녀의 성장을 감안하지 않은 것, 무시하는 것, 그리고 혹독한 말이나 육체적 학대’ 를 통해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주의 말씀의 양육하라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보면, “또 아버지들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고 하였습니다. 자녀들을 주의 교훈으로 길러야 합니다. 여기 교훈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이데이아(παιδαγωγία)” 인데 이는 ‘어린아이를 양육함, 교육, 훈련, 징계’ 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야기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 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고 하였고, 잠언 22장 15절에서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없었으나 징계하는 체적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고 하였습니다. 가정이 자녀들의 신앙 훈련의 장이 되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과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자녀의 삶이 하나님을 본 받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칼빈 선생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꾸준히 응답하고 반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둘째로, 이웃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사람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우리가 훈련받아야 함은 가정이라는 울타리에 갇히지 않고 교회공동체의 소중함을 눈을 떠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웃을 어떻게 섬기며, 이웃을 돌아보는 넓은 도량을 갖도록 교육을 해야 합니다. 셋째로, 이 땅에서 문화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연을 다스리도록 우수하게 창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空中的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고 하였습니다(창1:28).

###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인간관계에서 실패를 거듭하는 사람들을 보면, 부모와의 관계가 왜곡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와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또한 정서적으로 안정을 이루는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때로 이웃과의 갈등이 있을 때 치유되지 않은 영적인 문제가 숨어 있는 것을 봅니다. 부모의 훈계는 자녀들의 영혼을 늘 성실하게 하는 생명수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포기할 때 자녀는 어두움의 늪 속에 빠져 죽어가는 것입니다.

코메니우스는 자녀가 6세 이전에 배워야 할 것으로 네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첫째는 경건성을 가르쳐야 합니다. 둘째는 도덕성을 가르쳐야 합니다. 셋째는 건전한 학습을 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넷째는 건강을 유지하게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자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입니다. 부모의 끊임없는 훈계는 자녀로 하여금 가치 있는 생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신명기의 말씀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니라” (신6:6-7).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린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22:6). ■

# 화 5/3

마 5:1-12

##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그리고 천국백성의 품성이 어떠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다. 광복 중에 일곱 번째는 화평에 대한 것이다. 인류는 끊임없이 화평을 구했으나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만들어 내야 할 책임이 있다.

### 1. 화평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① “화평”이란 히브리어로 “shalom” 이고 헬라이어로는 “에이레노미오스(ἡρεμικός)”라고 하는데, ‘평안’, ‘화평’의 의미가 있다. 구약에서는 안전하다, 건강하다, 질병이 없다, 형통하다, 번영한다는 의미로 쓰였다.

② 평안은 자기 마음 가운데 자기 외부에서 어떠한 장애가 있어서 자기를 괴롭히는 사실이 완전하게 제거된 자유로운 상태를 가리킨다.

### 2.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

① 마음에 평화를 누리려는 자는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께 대한 관계가 모두 좋은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② 평화를 만들어 내는 사람은 관계를 깨뜨리는 근본인 죄를 멀리하고 죄가 들어오면 빨리 회개한다. ③ 왜냐하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기 때문이다(사48:22, 57:21). ④ 평화를 만들어 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입증된다.

화평을 만들어 내는 사람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안부를 묻는 일을 먼저 한다. 안부는 타인에게 평안을 빌어주는 것이다. 또한 다른 사람을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한다. 경쟁은 시기와 질투를 낳고 미움을 낳고 미움은 결국 화평을 갠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

# 화 5/4

마 5:1-12

##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의 복

광복중의 제일 마지막은 신앙의 결정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다. 신앙은 나 혼자만의 은밀한 것이 아니라, 신앙은 나 혼자만의 은밀한 것이 아니라, 신앙은 이 세상에서 내가 누구로 사는 것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기에 내가 세상을 향하여, 세상이나 나를 향해서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인다. 그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며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 1. 서로 다른 신분을 가진 사람들

① 이 지구에 60억의 인구가 있지만 두 신분이로 나뉘어진다. 인종과 국경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와 악한 자에게 속한 자로 구분된다. ②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품고 있다. 악한 자에게 속한 자는 타락의 본성을 품고 있다. 그런데 두 속성은 대적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악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짓누르고 핍박한다.

### 2. 핍박 받는 자의 복

① 개인이 아벨을 핍박했고 니므롯이 힘의 문화를 바벨탑으로 드러냈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고 사울이 다윗을 핍박했다. ② 그러나 성경은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고 했다(요3:19-20). 따라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일 것이다(요15:19). 그러나 우리는 핍박을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않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육체에 나타낸다(고후4:7-11).

구원받은 사람이 다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다. 구원의 생명을 갖고서 거룩한 목표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자에게 핍박이 온다. 사탄의 체계를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자에게 핍박이 온다. 우리 산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음을 넘기려는 생명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영광’, ‘순전한 말씀’,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드러낼 사명이 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해도 즐거움으로 감당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한 자이기 때문이다.

# 수 5/5

마 5:13-16

##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야

천국은 진공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시공간(時空間)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것은 천국 백성의 책임을 요구한다. 내가 이 세상에서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은 세상에 들어가서 소금 노릇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천국의 능력과 천국의 속성을 가지고 세상에 영향을 끼쳐야 한다.

### 1.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는다면,

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주님은 가정법을 쓰셨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만일 그 맛을 잃으면”(막9:50, 눅14:34). ②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다고 짙은 것을 다시 싱싱하게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세상에 대한 교회의 의무를 말한다.

### 2.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하는가?

① 구원의 복음이 우리로 중생케 하여서 그리스도적인 성품을 우리 생활을 통해서 나타낼 때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② 교회는 교회다운 본 모습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음으로 소금의 역할을 한다(약1:27). ③ 교회는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소금의 역할을 한다.

소금은 그 맛을 잃지 않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하다. 그 다음에는 소금 그대로 있으면 소용이 없다. 녹아서 소금의 맛을 내야 하는 것처럼 세상이 더 이상 악으로 치닫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것은 착한 행실과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할 수 있다.

# 복 5/6

마 5:13-16

##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은 비유로서 천국 백성의 모습에 대해서 가르치셨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순간부터 세상의 빛으로 존재한다. 우리가 이 세상에 빛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유지시키시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구에 태양빛이 없으면 생명체가 유지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귀한 자들이다.

### 1.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①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라”(요1:5). ② 예수님도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했다(요8:12). ③ 우리는 스스로 빛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로 행해야 한다(엡5:8).

### 2. 빛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① 빛은 어두움을 밝히는데 필요하듯이 세상의 죄의 어두움을 밝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세상은 “미련한 마음들이 어두워졌고”(롬1:21), “총명이 어두워졌고”(엡4:18),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하였다”(요일5:19). 그러므로 세상을 흑암의 권세라고 표현한다(골1:13). ② 빛의 열매로 어두움을 물리치고(엡5:9),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서 세상을 밝힌다.

우리는 속세를 떠나서 꼭꼭 숨어서 살 수 없다. 눈만 뜨면 세상과 접한다. 그러나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세상을 향하여 경고도 하고, 어두움에 갇혀 있는 자들을 끌어 내기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로 무장해야 한다.

# 복 5/7

마 5:17-20

##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님

주님은 제자들에게 산상에서 천국진리를 가르치고 있다. 제자들은 이미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주의 사상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그러나 당시 유대주의가 그릇되게 나가고 있음은 이들에게 깨우쳐 주셨다. 그릇된 인식은 그릇된 종교행위를 하게 된다. 따라서 주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본질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 1.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서

① 구약을 말할 때 토라, 느비임, 비게투법, 율법, 선지자들 그리고 기록한 기록물 등으로 표현한다.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말로 구약 전체를 표현하셨다. ②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율법도 지키지 않고 유대교의 전통도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 취급했다. ③ 예수님의 사역을 구약과 무관한 것으로 왜곡시켰다.

### 2. 구약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

① 이에 대해서 주님은 구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왔음을 밝히셨다(17절). ②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구약이 예표하는 제사와 제물과 절기 등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실현할 자들이 되어야 함을 가르치셨다(20절).

① 유대인들은 구약 율법을 생명처럼 여겼지만 율법의 정신을 상실했다. ② 율법의 정신을 상실하면 형식주의로 변질된다. 형식주의는 진리를 거절하고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게 된다.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나아가야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 복 5/8

마 5:21-26

## 노하지 말라

주님은 계속해서 율법의 정신을 일깨워 주셨다. 기독교의 본질은 사람의 영혼의 본질을 다룬다. 그래서 마음의 문제를 계속 언급한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마5:2).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신다(삼상16:7).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신6:5). 그 마음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다.

### 1. 모세 율법의 살인금지법

① 주님은 모세 율법을 들어서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고 언급하셨다(출20:13; 신19:11-13). ② 율법은 인간이 행동으로 법을 어겼을 때 그것을 죄로 여겼다. 물론 그 당시에는 율법이 실정법이었던 때이다.

### 2. 주님이 말씀하신 살인금지의 정신

① 주님은 행동으로 살인하는 것과 마음의 살인을 동일하게 취급하셨다. ② 행동으로 살인하게 하는 마음의 동기인 분노를 큰 죄로 여기셨다. 노하는 자와 형제에게 욕하는 자와 미련한 자라고 하는 자가 심판을 받는다고 하셨다(마5:22). ③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고 했다(요일3:15).

우리가 노를 발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다(약1:20).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했다(잠19:11). 미움이 노를 낳고 노가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른다.